

#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웹툰 <정년이>를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 여성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

서양소설연구 - 소프트웨어전공 20220792 김소정

## I. 서론

‘유리천장’이란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을 이유로 특히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이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능력과 성과를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며 정체를 겪곤 한다. 오늘날 사회는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변화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은 직장을 포함한 사회 여러 분야에 존재한다. 특히 과거부터 이어진 남성 중심의 문화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여성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소설 『자기만의 방』에서 작가는 여성이 최소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고정 수입, 타인의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며, 지금까지도 여성 작가를 포함한 사회의 수많은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편 웹툰 <정년이>에서는 1950년대 여성국극단을 배경으로, 여성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 공동체의 힘을 조명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설 『자기만의 방』과 웹툰 <정년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여성 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소설 『자기만의 방』은 여성이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논의하며, 여성이 문학과 예술의 창작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함을 언급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에 여성의 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성 중심 사회로 인해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고, 단순히 기회의 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문화적 편견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울프는 여성이 사회에서 가지는 불평등한 지위와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여성이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다.

웹툰 <정년이>는 여성국극단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배경으로 여성의 연대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품 속 국극단은 단순히 공연을 위한 예술적 공간을 넘어 여성들이 연대하며 서로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의 역할을 한다. 여성 국극은 남역 또한 여성이 소화함으로써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비판보다는 지지를 기반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갈등 상황을 함께 해결해가며 자기만의 방, 즉 ‘여성 주체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배경을 다루지만, 여성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기만의 방』에서 강조된 독립적 공간은 개인의 창작과 자유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지만, <정년이>는 이 공간을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여성들 간의 지지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개별 여성이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면, <정년이>의 국극단은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 더 큰 목소리로 확장되고,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장

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공동체와 연대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성 평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 가정, 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유리천장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장벽이며, 극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개선이 필요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여성 공동체와 연대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결국 여성 공동체는 여성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의미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 III. 결론

소설 『자기만의 방』과 웹툰 <정년이>는 각각의 방식으로 여성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다.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은 생존과 경쟁을 넘어 스스로를 지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울프는 자신의 소설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한 풍요로운 정신을 찾고자 한다. 다만, 그것은 여성이 사회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토대가 마련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그 이상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오직 여성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단순한 협력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울프가 주장했던 ‘자기만의 방’, <정년이>에서의 여성국극단, 그리고 ‘여자 대학교’와 같은 현대 사회의 여성 공동체는 모두 여성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사회다. 또한, 이는 여성이 직면한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고, 여성들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하며 여성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대할 때, 그 힘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는 울프가 꿈꿨던 이상적 공간, 그리고 <정년이>가 보여준 연대의 모습이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보여준다.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만의 방’과 같은 물리적·정신적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성 공동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제로 남을 것이다.

### IV. 참고문헌

1. 김희정. (2002).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신영어영문학, 22, 19-40.
2. 송소라. (2023). 웹툰 <정년이>를 통해 본 여성공동체 서사의 재맥락화 양상과 의미 - 여성의 성장, 연대, 그리고 사랑. 어문학, 161, 143-179. 10.37967/emh.2023.9.161.143